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1. 2.(목) 06:00 < 1.2.(목) 석간 > 배포 2025. 1. 1.(수)

3D프린팅 기술, K-방산을 업그레이드 한다

- 산업부-국방부,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
- 구축함 엔진 부품, 추진기 부품, 기관포 부품 등 3D프린팅 활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방부는 1월 2일(목)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부처는 '17년에도 3D프린팅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품 제조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분야 등을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어려운 군함, 전차 등의 부품을 대체하여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번 협약은 '17년부터 계속되어온 국방분야 3D프린팅의 부처 간 협력을 지속·연장하고, 보다 고도화된 국방부품 제조능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 3D프린팅 관련 ▲부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핵심부품의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 외에도 3D프린팅 부품 활용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부가 축적해온 R&D, 인프라, 인력 등의 자산과 국방부 및 생기원의 역량이 결집되어 다양한 성과의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번 협력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은 “이번 협약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자체

제작능력 확보를 추진하여 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D프린팅의 소재·부품·장비·공정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관련 디지털전환, 조선 MRO* 관련 기술도 지원 중으로, 앞으로도 3D프린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운항 선박 내 유지보수 부품 자체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융합 실증기술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박기호 (044-203-4262)
담당 부서	국방부 장비관리과	책임자	국 장	이갑수 (02-748-5700)
		담당자	과 장	김진규 (02-748-57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